

문제 1

1. 이 발문에 따르면 (나)는 가-1과 가-2를 통하여 비교되어야 하므로, 비교 기준을 규범의 파괴(나)로 확장하면 언어 규범의 파괴하나라는 기준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단어가 등장한 목적에 따른 비교는 물론 타당하지만, 발문에서 요구하는 비교는 아닙니다.

2. “ 이를 제시문 (가-1)의 논지에서 본다면 전자의 단어군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전자와 같이 화자의 의도를 신속하게 전달하거나, 상대방에 친근감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구성원들 간에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 형성된 유대감은 사회 내의 구성원들이 같은 사고 체계를 공유하는 것에 기여하며 나아가 사회 내의 사회 규범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기에 제시문 (가-1)은 전자의 단어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제시문 (가-1)은 후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내릴 것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 상황이나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를 만들으로써 그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 규범을 파괴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 따라서 오답입니다. 첫 번째 단어군은 언어 규범을 파괴했기에 부정적이며, 두 번째 단어군은 파괴하지 않았기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3. “ 이와 달리 전자의 단어군에 대해서는 새로운 문제 상황이나 일탈적 사회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언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라는 점을 근거로 후자의 단어군에 비해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바가 적을 것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 이 또한 오답이구요. 이유는 2번지적과 같습니다. 언어규범의 파괴는 일탈로 볼 수 있어요.

문제 2

1. “ 그러나 위의 분석과는 반대로 A국에 대해 오히려 경직된 사회 규범을 가졌다고 말할 수도 있다. A국가의 경우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지원율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결국 이러한 변화는 큰 틀에서 보면 여성의 지원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띤다. 이는 지난 10여년 동안 A국에서 사법시험의 위상이 그대로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A국의 지원자의 총계가 대부분의 경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상황을 더 잘 보여준다. 반면, B국의 경우 A와는 달리 지난 10년동안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2008년의 경우 1999년에 비해 사법시험의 위상이 약해져있다고도 볼 수 있다. ” 논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원율의 변화, 여성의 지원율 증가 -> A국에서 사법시험 위상이 그대로? 어떤 논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B국의 변화 없음 -> 위상이 약해짐? 이 또한 이상합니다.

2. 이 외적으로 표에 대한 ‘해석’은 좋습니다. 하지만 발문은 표에 대한 해석을 (다)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며 A국과 B국의 변화를 (다)의 3국가와 연결했어야 합니다. 이 또한 없으므로 답안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